



KU OCW 참여 강의 개요(계획)

※ 실제로 진행할 강의에 대한 개요입니다.

1.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국문)	한국 근대문학과 역사적 기억
[선택] 교과목명 (영문)	영강 일 경우 작성 바랍니다.
교수자명(한영 필수)	(한글) 강은진 (영어, (예)) Hong, Kildong / Kim, Chul-soo) Kang, Eunjin
교과목 학습목표	당대 문인들의 삶과 문학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현재적 방법론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주교재	PPT
교과목 소개	이 강의는 한국 근대문학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지형도를 탐색하기 위해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문학청년들의 삶과 글을 살펴보는 "스토리텔링"형 강의입니다. 모든 회차의 수업은 각각 개별성과 총체성을 갖도록 구성됩니다. 이 강의에서 시대적 파고 속에서도 치열하게 운명과 마주했던 청년문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대문학을 현재적 방법론으로 향유하고 사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학작품을 매개로 그들과 교감하며 근대문학을 과거의 죽은 문학이 아니라 여전히 생동하는 문학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목 키워드	근대문학, 한국문학, 문인, 문학청년, 경성, 현해탄, 일제강점기, 백석, 정지용, 김기림, 임화, 이용악, 현해탄, 부관연락선, 로컬리티, 디아스포라, 코스모폴리탄, 마이너리티

2. 주차 별 강의 내용 및 연관 파일명

주차	주제	내용 요약	해당 주차의 강의자료 파일명
1	- 오리엔테이션 '근대'라는 상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근대'의 시기 구분과 관련한 학계의 주장을 정리하고 근대가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번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을 학습한다.	
2	- 초연결시대의 트랜스 로컬리티와 K문학 -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본 근대문학의 현재적 의미	초연결시대의 로컬리티가 단순히 지역적 경계나 문화적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경계 넘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이 한국문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애플TV의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근대와 현재가 교섭하며 이어지는 지점을 탐색하고, 이를 문학에 확장시켜 사유함으로써 근대문학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3	- 부관연락선의 비극 '현해탄'과 '네거리'의 시인 임화	일제강점기 청년문인들의 일본 유학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당시 유일한 한일 왕래 수단이었던 부관연락선의 체험이 녹아 있는 문학 작품을 통해 무거운 시대적 책무를 안은 채 살았던 그들의 삶과 문학을 이해해	

		본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인 '현해탄'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깊이 탐구하도록 한다.	
4	▪ 해방된 소년소녀, 모던보이와 모던걸 ▪ 경성 모더니티: 커피와 티룸	근대의 거센 물결을 가장 앞장서서 받아 들였던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에 대해 알아 본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보고,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이 대표적으로 향유했던 문화인 커피와 티, 카페와 티룸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 낸다.	
5	▪ 도시 체험과 거리의 비애 ▪ 김기림의 바다와 근대 주체	화려한 근대 도시로 변모한 경성의 거리에서 조선 청년들이 느꼈던 정서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문학 작품을 통해 살펴 본다. 또한 당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문인이었던 김기림 문학에 드러난 바다 상징을 살펴봄에 근대 주체의 주체성을 탐색해 본다.	
6	▪ 정지용의 바다와 고향 로컬리티 ▪ 임화의 바다와 '운명'	당대 문인들이 문학 작품 속에 매우 빈번하게 그렸던 바다의 의미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정지용과 임화의 바다를 살펴 본다. 정지용의 바다에는 이국과 고향의 로컬리티가 혼재했고, 임화의 바다에는 두렵지	

		만 나아가야만 하는 운명의 굴레가 넘실거리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7	- 이용악의 항구와 또 다른 운명 - 중간 고사	정지용, 김기림, 임화와는 달리 이용악의 시에 드러난 바다는 '항구'를 중심으로 한다. 항구에 모인 이방인들,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불안한 운명이 녹아 있는 작품을 통해 근대의 풍경을 상상해 본다.	
8	- 디지털 시화 리뷰 - 여행자와 피식민자의 시선: 백석의 기행시와 임화의 제국 체험	중간 과제로 제출한 디지털 시화(생성형 AI 구현)를 리뷰하며 근대 시문학 작품의 현대적 해석과 향유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여행'이 의미하는 바를 백석과 임화의 기행시를 통해 살펴 보며 식민지 근대 청년의 심상 지리에 대해 알아본다.	
9	- 만주 판타지 - 식민지 디아스포라와 아메리카니즘	근대 문인들이 왜 만주로 이주했는지, 거기서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이 문학 작품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른바 만주 판타지로 명명할 수 있는 그들의 이주 생활은 판타지가 아니라 철저	

		한 유랑자의 삶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근대 문인들의 미국 체험 및 미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근대 조선의 아메리카니즘의 안과 밖을 조명해 본다.	
10	▪ 근대적 '향토'의 탄생과 전통의 리부트 ▪ 1930년대 표준어 담론과 중앙어의 탄생	1930년대는 근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됨과 동시에 전통에 대한 추구의 경향도 강하게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향토'가 탄생하게 되었고 전통의 리부트 바람이 불게 된다. 그러한 경향은 언어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표준어 규정이 마련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 표준과 비표준의 경계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서 문인들은 분분한 의견을 제기한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역동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현장을 살펴볼 것이다.	
11	▪ 소거된 방언, 생동하는 사투리 ▪ 탈식민과 국제 표준을 향한 언어적 열망	문학 언어의 표준화 문제는 1930년대 이후 문인들의 당면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문학에서 방언을 의식적으로 소거하는 경향이 이때에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성과 달리 오히려 사투리와 방언의 미학적 기능을 추구하는 문학 작품이 남아 있다. 또한 에스페란토 열풍이 조선 문단에 불어닥친 것도 이 시기이다. 이는 지역어로서	

		일본어를 극복하고 세계공용어를 추구하는 일종의 표준화의 목적을 표면적으로 띄고 있었으나, 그 내면에는 탈식민의 강렬한 열망이 작용하고 있었다. 언어의 장에서 벌어진 이러한 욕망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12	▪ 내용과 형식, 그 오래된 대립의 역사 ▪ 해방을 둘러싼 동상이몽	한국문학의 가장 오래되고 반복되어 온 논쟁은 내용과 형식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에 태동된 내용-형식 논쟁의 표면과 이면을 살펴보고, 한국 문단을 오랜 기간 양분해온 좌익과 우익,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대립이 해방기에 매우 다종다양한 문학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구해볼 것이다.	
13	▪ 두 개의 '성탄제' ▪ 가톨릭시즘 문학 논쟁과 정지용	한국의 근대는 서구 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그리스도교 문화였다. 이번 시간에는 '성탄제'라는 동일한 제목의 두 작품을 비교하며 읽어 보고 서구 문화가 한국적으로 변용되어 고착된 경향을 탐색해 본다. 또한 한국 문단에서 매우 독특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가톨릭시즘 문학 논쟁의 전말을 살펴본다.	

14	▪ 번역: 코스모폴리탄의 욕망 ▪ 거대담론의 해체와 마이너리티 연대	세계화에 대한 열망은 근대 문인들에게는 신세계에 대한 희망과 꿈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번역은 세계로 가는 통로였으며 그들은 스스로를 코스모폴리탄이라 칭하며 세계주의를 표방했다. 이 시간에는 코스모폴리탄의 열망으로 태동된 세계화에 대한 추구가 현대에 이르며 어떠한 민중의 형태로 변화해 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거대담론이 해체되고 수많은 마이너리티들이 '느슨하지만 촘촘한 연대'를 이루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5	▪ 종합토론 ▪ 기말고사		
16			